

은퇴유형에 따른 은퇴가계 특성 비교:

전통적 은퇴와 점진적 은퇴를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by Retirement Types:
Focused on Traditional Retirement and Gradual Retirement

성신여자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조 교수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석사 김연주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Assistant Professor: Cha, Kyung-Wook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Master: Kim, Yeon-Ju

〈목 차〉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demographic, economic and career characteristics between a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and a gradual retirement group. From the 2005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780 traditional retirees and 265 gradual retirees were selected. A t-test,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mple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gender and age differences between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and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has a high proportion of male workers and older worker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Second, members of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have more income, more assets and less debt than members of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therefore, their financial structure is comparatively stable. Third, there is a large percentage of blue-collar workers (e.g., technical service, repair, operatives) in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 주저자, 교신저자: 차경욱 (kwcha@sungshin.ac.kr)

Members of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had worked for a shorter period during their career and had a lower wage rate than members of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Finally, male workers who are in their 60s and 70s, who do not have a public transfer income but have a higher level of career income, and are older when they end their career, are less likely to retire gradually. As they also have a higher level of debt, the probability of these workers selecting a gradual retirement route is high.

Key Words : 은퇴유형(retirement type), 전통적 은퇴(traditional retirement), 점진적 은퇴(gradual retirement), 은퇴경로(retirement pathway)

I.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문제에 직면해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2007년 현재 평균수명이 80세에 이른 반면(통계청, 2007),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고용불안으로 인해 조기은퇴가 증가하면서 개인과 가계 및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인과 가계는 점점 길어지는 노후생활을 위해 안정적인 은퇴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고, 국가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부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족분을 보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보장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재정 부담은 후세대에 전가되어 세대 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에는 중·고령 은퇴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여 그들 스스로 소득원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정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은퇴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경쟁력 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수준 감축 등을 통해 은퇴시기를 지연시키거나, 퇴직 후 재취업을 장려하는 방법이 중점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즉 다양한 은퇴유형과 은퇴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가계가 재정자원을 확보하고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은퇴는 단 한 번의 전환과정을 거쳐 생애직업(career job)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이탈하는 형태였다. 생애직업, 즉 근로자가 평생 동안 종사해 온 주된 일자리에서 곧바로 노동시장을 완전히 은퇴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과거 연구들은 주로 은퇴와 비은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와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은퇴과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은퇴를 점진적 과정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Quinn, Burkhouse, & Myers, 1990). 즉 생애직업에서 시간제(part-time)근무를 하거나, 새로운 연결직업(bridge job)을 거쳐 점진적으로 은퇴해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이다.

점진적인 은퇴과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제,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퇴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중·고령자가 은퇴한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근로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 혹은 비자발적 완전은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권문일, 1996).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한 생애직업에서 직접 은퇴를 하는 근로자들과 생애직업 이후 연결직업을 거쳐 은퇴를 하는 근로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전자를 전통적 은퇴, 후자를 점진적 은퇴라고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주로 어떠한 은퇴과정을 거치며, 상이한 은퇴과정을 경험하는 근로자들의 가계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가족구성원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가계구성 및 가계 경제적 특성이 개개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전통적 은퇴를 선택한 집단과 점진적 은퇴를 선택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가계 경제적, 직업적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 둘째 은퇴과정을 동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점진적 은퇴집단이 경험한 산업, 직종, 고용형태의 변화를 파악하며 셋째, 상이한 은퇴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떤 가계가 전통적 은퇴를 선택하고 어떤 가계가 점진적 은퇴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가계 특성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은퇴유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노후생활 대비와 노후 복지증진을 위해 은퇴과정과 관련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은퇴가계의 노후생활수준 향상 및 재정적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은퇴의 개념

은퇴(隱退)의 사전적 정의는 ‘직업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08). 그러나 실제로 은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은퇴를 측정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를 정의, 측정해 왔다. 김지경(2004)은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은퇴 사유와 확대되고 있는 은퇴자 연령범위를 고려하여 은퇴자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은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는 은퇴의 결정기준으로, 관련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연령 뿐 아니라 연금수급여부, 경제활동참가여부 등이 은퇴의 측정기준으로 사용된다고 보고했다. 이정원(2006)의 경우, 은퇴란 경제활동 또는 사회활동 경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향후 본격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어야 하며, 취업차원, 주관적 평가 차원, 연령차원 모두가 고려된 포괄적 개념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는 퇴직을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 물러나 노동시장에서 반영구적으로 이탈한 상태로 정의한 가운데, 퇴직의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방법, 경제활동참가여부에 따른 구분,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에 따른 구분, 생애 주된 일자리(career job)중단에 따른 방법, 연금수급에 따른 구분 등으로 퇴직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Quinn(1981)은 은퇴 구분을 ‘완전은퇴/부분은퇴/은퇴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응답자들이 스

스로 이 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동시에 현재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스스로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99%정도가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고, 완전히 은퇴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응답에 따른 은퇴여부와 현재 소득활동 상태에 대한 객관적 응답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uhm(1990)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측정에 따른 은퇴/부분은퇴/비은퇴 개념과 소득수준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응답자들을 완전 은퇴자와 부분은퇴자로 구분한 바 있다.

은퇴에 관해 연구한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한국노동패널자료 혹은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중·고령자부가조사를 사용했다(박경숙, 2001, 2003; 장지연, 2002; 김지경, 2004, 2008; 안중범·전승훈, 2004; 이정원, 2006 등).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노동패널자료 혹은 중·고령자부가조사에서 정의한 은퇴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은퇴는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조사당시 시점에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는 현재의 경제활동상태 측정했을 뿐 아니라, Quinn(1981)의 연구에서처럼 응답자에게 '완전은퇴/부분은퇴/은퇴하지 않았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 주관적 측정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이승원, 김동배, 이주연, 2008).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근로자의 은퇴경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활동참가로부터의 철회' 개념과 Quinn(1981)의 연구에서 사용한 '완전은퇴'의 개념으로 은퇴상태를 측정하고자 한다.

2. 은퇴유형과 은퇴경로

전통적인 은퇴(traditional retirement)는 단 한 번의 전환과정을 거쳐 전일제 생애직업(full-time career job)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이탈하는 형태였다. 생애직업(career job), 즉 근로자가 평생 동안 종사해 온 주된 일자리에서 곧바로 노동시장을 완전히 은퇴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미국 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초기의 은퇴 연구들은 은퇴와 비은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Retirement History Study (RHS)를 사용한 연구들은 다수의 고령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해나가는 것을 관찰하고, 비전통적인 은퇴경로와 다양한 은퇴유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Quinn, Burkhaue, & Myers, 1990).

점진적인 은퇴(gradual retirement)는 전통적 은퇴와는 달리, 전일제 생애직업에서 곧바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생애직업에서의 시간제 근무나 생애직업과는 다른 연결직업(bridge job)을 거쳐 점진적으로 은퇴해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연결직업은 생애직업 이탈 이후 완전히 은퇴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연결해 주는 직업들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이현기, 2003). Ruhm(1990)은 연결직업의 산업과 직종이 대부분 생애직업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은퇴유형은 완전은퇴(full-retirement)와 부분은퇴(partial-retirement)의 개념으로도 구분되기도 한다. 완전은퇴는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을 완전히 그만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부분은퇴는 연결직업에 종사하는 것, 이전 직업에서 노동력 혹은 임금의 현저한 감소를 경험하는 것 등 생애직업에서 전이된 일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은퇴행위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이직행동과는 다르다(이현기, 2003). 또한 고령근로자에 있어 근로를 지속하고 싶은

욕구나 혹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근로를 의미할 수 있다(Kim & DeVaney, 2005). 부분은퇴는 생애직업으로부터 완전은퇴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은퇴경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현기(2003)는 미국의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Older Men) 자료를 사용하여 55세~61세 남성의 경력마감형태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형태(27.3%),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에서 근무하는 형태(46.1%), 노동시장 진출입을 반복한 형태(4.4%),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형태(15.9%), 영구적으로 은퇴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는 형태(6.3%) 등 다양한 형태의 경력마감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연금, 공적연금, 노동 시장상태, 직업의 구조변수가 고령자의 경력마감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경숙(2003)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을 분석하여 은퇴 유형화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3차년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동일직업 지속형, 직업 이동형, 완전 비취업형, 반복 비취업형의 네 가지로 4가지로 일자리 이동이 유형화되었다. 또한 일자리 이동 유형에 따라 은퇴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경력 이후 정년제나 연금보장제도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한 상층 정규직 임금근로자 유형, 자영업자처럼 공식적인 은퇴정년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노후연금이나 자산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은퇴 유형, 자녀로부터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한 유형, 개인자산이나 연금자산이 적고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형, 그리고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유형으로 나뉘었다.

Ruhm(1990)은 RHS(Retirement History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은퇴경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약 40%는 생애직업으로부터 직접 최

중 은퇴했고, 응답자의 50%는 노동경력의 한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은퇴했으며, 25%는 첫 은퇴 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은 최종은퇴 전까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결직업을 보유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연결직업을 거친 응답자의 75%는 산업이나 직종을 변경하였고, 약 50%는 산업과 직종을 모두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연(2003)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패널로 연결하여 사건사 분석을 통해 45세 이상 취업자의 경력이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은 자영업과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경로를 통해 은퇴를 하는 비율이 전일제 근로에서 직접 은퇴하는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또한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미취업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임시직이나 자영업자로 전환할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시간제 근무, 임시직이나 자영업이 임금근로자의 대안적 은퇴형태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은정(2006)은 한국노동패널 3~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중·고령자의 완전퇴직 및 점진적 퇴직현황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50세 이상 중·고령근로자의 약 4분의 1은 점진적 퇴직과정을 이행하고 있었고, 종사상 지위가 변한 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령자가 퇴직 후에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대안으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이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지속기간이 대부분 1~2년으로 매우 짧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은퇴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들은 은퇴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피부양자수, 소득, 자산, 부채, 직종 및 고용형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령, 성별 및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선행연구에 따라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Kim과 DeVaney(2005)에서는 연령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부분은퇴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 장지연(2003)도 연령이 높을수록 전일제상태의 노동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지은정(2006)에서는 연령이 평균으로부터 1세 증가할 때마다 점진적 퇴직의 발생 확률이 1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가능성 및 신체능력, 근로욕구, 재정적 필요 등이 더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시장 이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보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점진적 은퇴보다는 완전은퇴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Quinn et al(1990)은 50세~57세 집단이 생애직업에서 연결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58세~62세 집단은 연결직업으로의 이동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박경숙(2003)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양한 직업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과 DeVaney(2005)은 남성 근로자가 부분은퇴를 하는 가능성이 높고, 여성 근로자는 은퇴보다는 전일제 근로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장지연(2003)에서는 남성이 여성 보다 실업을 통해 전일제 근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 비경제활동이나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Quinn(1996)의 연구 역시 남성이 여성 보다 전통적 은퇴경로를 거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DeVaney(2005)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고령근로자일수록 부분은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지연(2002)에서는 대졸이상의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의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점진적 은퇴경로 선택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Quinn(1996)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경력직에서 완전은퇴로의 직접적 전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전일제 근로에서 완전은퇴로 이어지는 전형적 과정을 거친다는 연구결과(Flippen, 2005)와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 보다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확률이 낮다는 연구(지은정, 2006)도 있었다.

박경숙(2003)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근로자가 그렇지 못한 근로자에 비해 다양한 경력이동을 보이며, 장기간 비취업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문일(1996)에서도 건강한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퇴직 후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기(2003) 역시 건강한 중·고령근로자는 55세 당시의 직업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해당 직업을 떠나더라도 다시 전업하는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Quinn(1996)에서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생애직업을 이탈할 가능성, 연결직업으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자산, 부채 등 재정자원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는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이 퇴직 후 경제활동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소득, 이전소득과 같은 비근로소득이 대체효과로 작용하여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Quinn

et al(1990)에서는 소득과 자산 수준에서 상위와 하위에 분포한 근로자들이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층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며, 부유층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과 헌신으로 계속 근로를 선택하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Hayward와 Hardy(1985)에서는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연금에 미가입한 근로자에 비해 그들의 생애직업을 벗어날 가능성, 연결직업으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는 연금수령액이 클수록 퇴직 후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Quinn(1996)은 근로자의 직종과 업종에 따라 은퇴유형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농업과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의 50%이상, 건설업과 소매업 종사자의 40%이상, 그리고 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근로자의 3분의 1은 전일제 근로에서 곧바로 완전은퇴로 전환하지 않은 반면, 생산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전통적 은퇴경로를 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yward와 Hardy(1985)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생애직업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연결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고, Kim과 DeVaney (2005)에서는 자영업자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축근로를 통한 부분은퇴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은퇴(생애직업에서 직접 은퇴)를 선택한 집단과 점진적 은퇴(생애직업 이후 연결직업을 거쳐 은퇴)를 선택한 집단

의 인구사회학적, 가계 경제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비교하고, 나아가 은퇴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은퇴유형 선택과 관련된 가계 특성을 규명하고, 노후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은퇴관련 지원제도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계 경제적 특성, 일자리 특성(생애직업, 연결직업)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전통적 은퇴와 점진적 은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선정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1차년도(2005년) 학술대회용 자료이다. 이는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생애직업으로부터 이탈하여 완전은퇴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1) 은퇴자 선정

선행연구(권문일, 1996; Quinn, 1981)에서 정립한 은퇴의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은퇴는 생애 동안 근로 및 소득 활동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생애 동안 1년 이상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한 적이 있

었다'라고 응답한 자를 추출하였다. 둘째, 은퇴는 현재 노동시장을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이탈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최근 2개월 동안 수입이 되는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자를 추출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은퇴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은퇴상태를 묻는 자기기입식 문항에서 '완전히 은퇴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를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완전은퇴란, 현재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은퇴자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즉 생애 동안 1년 이상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한 적이 있으나 최근 2개월 동안은 수입이 되는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자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은퇴자는 총 1,045명으로 집계되었다.

2)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구분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구분은 생애직업(career job), 즉 근로자가 평생 동안 종사해 온 주된 일자리를 중단한 이후에 근로경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먼저 생애직업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05)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애직업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은퇴자들의 생애 근로경험 유무,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생애직업을 정의하였다.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한 은퇴자는 직업이동 경력 없이 은퇴한 것이

므로 마지막 일자리를 생애직업으로 보았다. 그러나 마지막 일자리 이전에 근로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은퇴자들은 선행연구(Quinn, Burkhauser & Myers, 1990; Gustman & Steinmeier, 2000; 이현기, 2003)에 근거하여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의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만 생애직업으로 보았다. 생애직업 없이 잦은 직업이동과 단기적 근속을 경험해 온 근로자들은 이직과 은퇴과정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은 앞서 정의한 생애직업에 근거하여 구분하였다.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한 은퇴자들은 생애직업에서 직접 은퇴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통적 은퇴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마지막 일자리 이전에 10년 이상 근무했던 생애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일자리가 연결직업(bridge job)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점진적 은퇴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진적 은퇴집단을 정의할 경우,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젊은 나이에 마지막 일자리로 이동했다면 그것을 점진적 은퇴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몇 세 이후의 경력이동을 은퇴과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지연(2003)은 45세 이후의 경력이동을 은퇴로 향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였고, 지은정(2006)은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전환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박경숙(2001, 2003)은 노동이탈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은퇴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청(2006)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는 평균적으로 만 54세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만 50세 이후에 마지막 일자리로 경력이동을 한 은퇴자들만 점진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 | | | | |
|-----------|-------------|---------|--|--|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 | 남성/여성 | |
| | 연령 | | 조사시점(2005) 당시의 만 연령 | |
| | 교육수준 | | 무학/초졸/중·고졸/대졸 이상 | |
| | 가구원수 | | 전체 가구원수 | |
| | 배우자 유무 | | 있음/없음 | |
| | 건강상태 | | 10점 척도 및 상/중/하 | |
| 경제적 특성 | 소득 | 재산 소득 | 금융소득 | 예·적금 이자, 국·공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및 매매차익, 사적으로 빌려 준 돈의 이자 등 연간총액 |
| | | | 부동산소득 | 집세(월세), 집세 제외한 각종 임대료, 부동산매매차익, 권리금차익, 기타 부동산 소득 등의 연간총액 |
| | | | 연금소득 |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부터의 연간 총소득액 |
| | | | 기타소득 | 보험금, 퇴직금, 상속/증여받은 현금, 현물 등의 연간총액 |
| | 이전 소득 | 공적 이전소득 | 사회보장급여 연간 수령총액(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등) | |
| | | 사적 이전소득 | 가족, 친인척, 이혼한 배우자, 사회/종교단체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현물지원 등의 연간총액 | |
| | 지출 | 연간가계총지출 | | |
| | 자산 | 총 자산 | 금융자산 | 금융기관 예·적금, 개인연금 불입총액, 저축성보험 불입총액, 적립식펀드 납부금, 주식투자자금, 회사채, 국·공채 등 유가증권, 사적으로 빌려준 돈, 아직 타지 않은 껏돈 등 |
| | | | 부동산자산 | 거주주택 자산가치, 거주주택 외의 주택자산가치, 사업체의 자산가치, 기타 부동산의 자산가치 |
| | | | 기타자산 |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 트럭, 선박, 항공기, 농기계 등, 콘도 및 골프 등 각종 회원권, 귀금속, 그림 등 소장예술품 |
| 부채 | 총부채 잔액 | | | |
| 일자리 특성 | 산업 | | 농림어업/광공업/건설업/전기·운수·통신·금융업/도소매·음식·숙박업/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 |
| | 직업 | | 전문·관리직/사무·판매·서비스종사자/농어업종사자/기능원·단순노무직 | |
| | 고용형태 | | 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
| | 근속년수 | | 근무 종료시점 - 근무 시작시점 | |
| | 직업 종료 당시 연령 | | 현재 연령-은퇴 후 경과기간(2005년-근무 종료시점) | |
| | 월평균 임금 | | 그만두기 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세전 임금 | |

적 은퇴집단에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진적 은퇴집단은 10년 이상 근무한 일자리(생애직업)에서 만 50세 이후에 마지막 일자리(연결직업)로 이동한 후 최종

은퇴에 이른 은퇴자들로 정의된다. 총 은퇴자 1,045명 중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은 780명,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265명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의 구성 및 분석방법

우선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인구·사회학적, 가계 경제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카이제곱 검증, t-검증,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의 구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배우자유무,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가계 경제적 특성은 가계소득, 지출, 자산, 부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일자리 특성은 생애직업의 산업, 직종, 고용형태, 근속년수, 직업 종료 당시 연령, 월평균임금을 살펴보았으며,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에 대해서는 생애직업과 연결직업에서 산업·직종·고용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전통적 은퇴와 점진적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전통적 은퇴를 선택했는지, 점진적 은퇴를 선택했는지의 이분변수이고, 독립변수는 위에서 언급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계 경제적 특성, 일자리 특성 등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비교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조사대상 은퇴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약 60%정도가 여성이었고, 60대의 비율이 44%, 70대 이상의 비율이 45% 정도였으며 평균 연령은 68.7세였다. 30%정도가 무학, 46%가 초·중졸, 24%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원 수는 평균 2.8명이었고, 조사대상 은퇴자의 약 66%는 배우자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육체적, 심리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10점 만점에 5.2점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과 연령이었다. 전통적 은퇴집단의 경우, 남성이 43.5%, 여성이 30.9%인데 반해,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남성이 56.5%, 여성이 69.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통적 은퇴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고한 Quinn(199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 보다 부분은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Kim과 DeVaney(2005)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연령을 살펴보면, 점진적 은퇴집단의 평균 연령이 69.7세로서 전통적 은퇴집단의 평균 연령(68.3세)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전통적 은퇴집단은 60대(44.1%)와 70대 이상(42.9%)의 비중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점진적 은퇴집단은 60대(43.8%)와 70대 이상(50.2%)의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점진적 은퇴를 경험한 은퇴자들은 생애직업 이탈 후 연결직업을 통해 근로를 지속했기 때문에 최종은퇴 시기가 지연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이 응답자의 연령분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가계 경제적 특성 비교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가계 경제적 특성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 지출, 자산, 부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조사대상 은퇴자 가계 전체를 대상으로 각 원천별 소득, 지출, 세부항목별 자산, 부채의 평균값을 제시했다. 또한 각각의 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으며, 보유자들만으로 대상으로 가계소득,

〈표 2〉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¹⁾

| 변수 | 구분 |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 | | | | | t/χ ² |
|--------|--------|-------------------|--------|----------------|--------|----------------|--------|------------------|
| | | 전체 (n=1,045) | | 전통적 은퇴 (n=780) | | 점진적 은퇴 (n=265) | | |
| 성별 | 남 | 421 | (40.3) | 339 | (43.5) | 82 | (30.9) | 16.097*** |
| | 여 | 624 | (59.7) | 441 | (56.5) | 183 | (69.1) | |
| 연령 | 50대 | 117 | (11.2) | 101 | (12.9) | 16 | (6.0) | 10.758** |
| | 60대 | 460 | (44.0) | 344 | (44.1) | 116 | (43.8) | |
| | 70대 이상 | 468 | (44.8) | 335 | (42.9) | 133 | (50.2) | |
| | 평균(세) | 68.7 | (7.6) | 68.3 | (7.8) | 69.7 | (6.7) | 2.848** |
| 교육 수준 | 무학 | 314 | (30.1) | 240 | (30.8) | 74 | (28.0) | 3.001 |
| | 초·중졸 | 478 | (45.8) | 345 | (44.3) | 133 | (50.4) | |
| | 고졸이상 | 251 | (24.1) | 194 | (24.9) | 57 | (21.6) | |
| 가구원수 | 평균(명) | 2.8 | (1.5) | 2.8 | (1.4) | 2.7 | (1.5) | -908 |
| 배우자 유무 | 있음 | 684 | (65.5) | 517 | (66.3) | 167 | (63.0) | .931 |
| | 없음 | 361 | (34.5) | 263 | (33.7) | 98 | (37.0) | |
| 건강 상태 | 상 | 238 | (22.8) | 184 | (23.6) | 54 | (20.4) | 1.175 |
| | 중 | 393 | (37.6) | 291 | (37.3) | 102 | (38.5) | |
| | 하 | 414 | (39.6) | 305 | (39.1) | 109 | (41.1) | |
| | 평균(점) | 5.2 | (1.9) | 5.2 | (1.9) | 5.1 | (1.8) | -1.063 |

- 1)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2) 건강상태는 10점 만점(육체적 건강 5점+심리적 건강 5점)으로 측정함. [M±S.D/2]를 기준으로 상(6.16점 이상), 중(4.25~6.15점), 하(4.24점 이하) 세 집단으로 분류함.
 * p<.05 ** p<.01 *** p<.001

지출, 자산, 부채 보유액 평균을 구하였다. 보유율이 낮은 항목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경제적 특성은 전체 평균이 아닌 보유자 평균으로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은퇴자 가계 전체의 연간 가계총소득은 1,920만원 정도였고, 연간가계 총지출은 약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있는 가계는 88.7%였고, 그들 가계의 연간총소득은 평균은 약 2,16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 간에는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금소득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함하는데, 보유율이 매우 낮았으며(0.9%), 연금소득이 있는 가계의

연간 평균액도 431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퇴직 연금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자료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였고,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 은퇴집단의 연금소득 보유자 평균은 연간 576만원, 점진적 은퇴집단의 연금소득 보유자 평균은 310만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간 공적이전소득의 전체 평균은 218만원 정도였고, 조사대상의 75%정도가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자 평균은 약 290만원으로 나타났고, 전통적 은퇴집단이 약 335만원으로, 점진적 은퇴집단(약 172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반면, 연간 사적이전소득액은 전체 평균 약 304만원, 보유율 77%, 보유자 평균 393만원이

〈표 3〉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가계 경제적 특성 비교

(단위: 천원)

| 변수 | 구분 | 전체평균 (S.D) | 보유율 (%) | 보유자평균(S.D) | | | t-값 | |
|----|-------------|------------------------|--------------------------|------------------------|--------------------------|--------------------------|--------------------------|-----------|
| | | | | 보유자전체 | 전통적은퇴 | 점진적은퇴 | | |
| 소득 | 재산 소득 | 금융소득 | 986.8 (18,646.7) | 24.0 | 4,108.6 (37,935.6) | 4,542.7 (41,709.1) | 2,066.0 (5,256.4) | -3.93 |
| | | 부동산소득 | 1,418.3 (7,745.8) | 19.7 | 7,195.0 (16,241.3) | 11,676.0 (29,869.1) | 5,870.4 (8,646.7) | -1.316 |
| | | 연금소득 | 37.2 (514.5) | 0.9 | 4,313.3 (3,714.6) | 5,763.4 (6,044.2) | 3,098.1 (2,911.1) | -2.177* |
| | | 기타소득 | 1,273.1 (14,044.1) | 2.9 | 44,344.7 (71,586.5) | 51,200.8 (76,531.5) | 10,064.0 (15,761.4) | -1.181 |
| | 이전 소득 | 공적이전 | 2,176.4 (5,775.5) | 75.1 | 2,897.3 (6,501.2) | 3,348.7 (7,213.5) | 1,723.3 (3,881.4) | -4.052*** |
| | | 사적이전 | 3,037.0 (4,223.4) | 77.2 | 3,932.7 (4,424.7) | 3,720.4 (4,235.1) | 4,572.8 (4,908.6) | 2.374* |
| | 연간 가계총소득 | | 19,215.0 (35,263.3) | 88.7 | 21,660.9 (36,727.7) | 22,831.4 (39,136.3) | 18,366.4 (28,705.6) | -1.629 |
| | 지출 | 연간 가계총지출 | 16,103.6 (14,164.9) | 100.0 | 16,103.6 (14,164.9) | 16,508.8 (12,812.5) | 14,945.8 (17,440.9) | -1.491 |
| 자산 | 총 자 산 | 금융자산 | 18,627.7 (63,673.8) | 81.9 | 27,873.6 (60,129.0) | 34,760.7 (83,727.0) | 16,643.9 (38,521.0) | -2.856** |
| | | 부동산자산 | 173,968.6 (309,806.8) | 53.6 | 212,379.9 (330,196.3) | 235,276.8 (363,047.9) | 144,706.0 (191,192.9) | -4.686*** |
| | | 기타자산 | 3,377.1 (12,588.4) | 38.0 | 5,052.0 (13,830.6) | 4,323.4 (8,390.6) | 7,400.9 (24,053.7) | 1.218 |
| | 순자산 | | 175,415.8 (310,475.9) | 90.7 | 193,364.4 (329,152.9) | 216,454.7 (363,134.2) | 124,093.5 (177,768.8) | -5.173*** |
| 부채 | 부채 총잔액 | 20,577.6 (61,506.7) | 36.9 | 55,654.7 (91,105.0) | 54,055.0 (83,396.0) | 60,355.9 (111,067.6) | .591 | |

* p<.05 ** p<.01 *** p<.001

었고, 점진적 은퇴집단이 약 457만원으로 전통적 은퇴 집단(약 372만원)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상호 간 대체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통적 은퇴집단은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수요가 낮은 반면, 공적이전소득이 불충분한 점진적 은퇴집단은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의 사적이전

이 더 필요할 것이다.

가계자산 항목들을 살펴보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보유액, 그리고 순자산액은 전통적 은퇴집단이 점진적 은퇴집단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은 1,863만원 정도이고, 약 81.9%의 가계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보유자 평균은 약 2,787만원이었는데, 전통적 은퇴집단의 금융자산 보유액(약

3,476원)이 점진적 은퇴집단 보유액(1,664만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부동산자산의 가치는 전체 평균 1억 7,400만원 정도이고 보유율은 53.6% 정도였다. 부동산보유가계의 자산 가치 평균은 2억 1,238만원이고, 전통적 은퇴집단이 약 2억 3,528만원으로 점진적 은퇴집단 보다 9,057만원 가량 많았다. 또한 부채총액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순자산액은 전통적 은퇴집단(약 2억 1,645만원)이 점진적 은퇴집단 (약 1억 2,409원) 보다 유의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 간 가계 경제적 특성을 비교해 볼 때,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이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보다 소득, 자산 수준이 높아 경제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일자리 특성 비교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일자리 특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우선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생애직업 특성을 비교하였고(<표 4>),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우에는 생애직업과 연결직업의 특성을 다시 비교하였다(<표 5>).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생애직업 특성을 비교한 결과, 산업, 직업, 고용형태, 근속년수, 직업종류 당시 연령 및 월평균임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농림어업이었으나, 전통적 은퇴집단의 비율(38.1%)이 점진적 은퇴집단의 비율(33.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공업, 운수·통신·금융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인·

<표 4>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생애직업 특성 비교¹⁾

| 변수 | 구분 |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 | | | | | t/χ ² |
|----------------|------------|-------------------|-----------|----------------|-----------|----------------|-----------|------------------|
| | | 전체 (n=1,045) | | 전통적 은퇴 (n=780) | | 점진적 은퇴 (n=265) | | |
| 산업 | 농림어업 | 383 | (36.8) | 297 | (38.1) | 86 | (33.0) | 12.419* |
| | 광공업 | 116 | (11.1) | 82 | (10.5) | 34 | (13.0) | |
| | 건설업 | 62 | (6.0) | 44 | (5.6) | 18 | (6.9) | |
| | 운수·통신·금융업 | 46 | (4.4) | 30 | (3.8) | 16 | (6.1) |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211 | (20.3) | 147 | (18.9) | 64 | (24.5) | |
| | 개인·공공서비스업 | 223 | (21.4) | 180 | (23.1) | 43 | (16.5) | |
| 직업 | 전문·관리직 | 132 | (12.8) | 105 | (13.5) | 27 | (10.5) | 10.990* |
| | 사무·판매·서비스직 | 246 | (23.8) | 185 | (23.9) | 61 | (23.6) | |
| | 농림어업직 | 350 | (33.9) | 275 | (35.5) | 75 | (29.1) | |
| | 기능원·단순노무직 | 305 | (29.5) | 210 | (27.1) | 95 | (36.8) | |
| 고용형태 | 임금근로자 | 465 | (44.5) | 346 | (44.4) | 119 | (45.0) | 1.805 |
| | 고용주/자영업자 | 336 | (32.2) | 245 | (31.4) | 91 | (34.5) | |
| | 무급가족종사자 | 243 | (23.3) | 189 | (24.2) | 54 | (20.5) | |
| 근속년수(년) | | 29.4 | (16.3) | 31.3 | (17.1) | 22.8 | (10.8) | -8.847*** |
| 직업 종료 당시 연령(세) | | 61.6 | (7.6) | 63.0 | (7.6) | 56.8 | (5.3) | -13.691*** |
| 월평균 임금(천원) | | 1,216.4 | (1,244.3) | 1,327.1 | (1,332.6) | 1,042.7 | (1,167.9) | -3.504** |

1)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 p<.05 ** p<.01 *** p<.001

<표 5> 점진적 은퇴집단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비교¹⁾

(n=265)

| 변수 | 구분 | 빈도(%)또는 평균(표준편차) | | | | t/ χ^2 |
|----------------|------------|------------------|-----------|-------|---------|-------------|
| | | 생애직업 | | 연결직업 | | |
| 산업 | 농림어업 | 86 | (33.0) | 45 | (17.0) | 32.564*** |
| | 광공업 | 34 | (13.0) | 41 | (15.5) | |
| | 건설업 | 18 | (6.9) | 21 | (7.9) | |
| | 운수·통신·금융업 | 16 | (6.1) | 21 | (7.9) |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64 | (24.5) | 47 | (17.7) | |
| | 개인·공공서비스업 | 43 | (16.5) | 90 | (34.0) | |
| 직업 | 전문·관리직 | 30 | (13.4) | 24 | (9.7) | 34.365*** |
| | 사무·판매·서비스직 | 24 | (10.7) | 30 | (12.1) | |
| | 농림어업직 | 75 | (33.5) | 32 | (13.0) | |
| | 기능원·단순노무직 | 95 | (42.4) | 161 | (65.2) | |
| 고용 형태 | 임금근로자 | 119 | (45.0) | 180 | (67.9) | 30.876*** |
| | 고용주/자영업자 | 91 | (34.5) | 63 | (23.8) | |
| | 무급가족종사자 | 54 | (20.5) | 22 | (8.3) | |
| 근속년수(년) | | 22.8 | (10.8) | 7.1 | (5.4) | -19.080*** |
| 직업 종료 당시 연령(세) | | 56.8 | (5.3) | 65.0 | (6.3) | 21.644*** |
| 월평균 임금(천원) | | 1,042.7 | (1,167.9) | 823.7 | (712.4) | -2.764** |

1)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 p<.05 ** p<.01 *** p<.001

공공서비스업은 전통적 은퇴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통적 은퇴집단은 농림어업직을 생애직업으로 가졌던 은퇴자가 가장 많은(35.5%) 반면, 점진적 은퇴집단에서는 생애직업이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이었던 은퇴자(36.8%)가 가장 많았다. 생애직업이 전문·관리직이거나 농림어업직인 은퇴자들은 전통적 은퇴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생애직업이 기능원·단순노무직이었던 은퇴자들은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에 속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 은퇴를 한 조사대상의 생애직업 근속년수는 31.3년으로, 점진적 은퇴집단의 근속년수(22.8년) 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점진적 은퇴집단의 경우, 생애직업 이후 연결직업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애직업

근속년수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6)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년수가 20.9년으로 집계되었던 것에 비하면, 두 집단 모두 생애직업 근속년수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5>에 제시된 연결직업 근속년수(7.1년)를 합산하여 점진적 은퇴집단의 근속년수 총합을 계산하면 29.8년인데, 여전히 전통적 은퇴집단의 근속년수(31.3년) 보다 짧다. 총 근속년수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점진적 은퇴집단이 전통적 은퇴집단보다 더 오랜 기간 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더 오래 일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점진적 은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애직업이 예상 보다 일찍 중단되면서 남은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연결직업을

선택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생애직업 종료 당시 연령은 전통적 은퇴집단이 63세로 점진적 은퇴집단(56.8세) 보다 6.2세가량 높았다. 점진적 은퇴집단의 연결직업 종료 연령, 즉 완전은퇴 연령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65세이며, 이는 전통적 은퇴집단의 완전은퇴 연령(63세) 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이다. 앞서 근속년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데 반해, 은퇴연령은 점진적 은퇴를 선택한 은퇴자들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직업에서의 월평균 임금은 전통적 은퇴집단이 약 133만원, 점진적 은퇴집단이 약 104만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통적 은퇴집단의 경우, 근속년수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점진적 은퇴집단의 경우, 생애직업의 임금수준이 낮아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결직업을 통해 근로기간을 연장한 것일 수 있다.

점진적 은퇴집단만을 대상으로, 생애직업과 연결직업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표 5>), 산업, 직업, 고용형태, 근속년수, 직업종료 당시 연령 및 월평균임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생애직업의 산업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24.5%), 개인·공공서비스업(16.5%)의 순인데 반해, 연결직업의 산업은 개인·공공서비스업(34.0%)이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17.7%), 농림어업(17.0%)의 순이었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생애직업이 건설업이었던 근로자 중 56%, 도소매·음식·숙박업이었던 근로자 중 31%, 농림어업이었던 근로자 중 22%, 광공업이었던 근로자 중 21% 등이 개인·공공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점진적 은퇴집단의 직업분포를 살펴본 결과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모두 기능원·단순노무직

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생애직업(42.4%) 보다 연결직업(65.2)에서 기능원·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생애직업에서는 농림어업직이 34%가량이었던 것에 반해, 연결직업에서는 농림어업직의 비중(13%)이 현저하게 줄었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생애직업이 농림어업직이었던 근로자의 57%, 전문·관리직이었던 근로자의 39%가 연결직업을 기능원·단순노무직으로 바꾸었고, 생애직업이 기능원·단순노무직이었던 근로자의 92.3%는 연결직업도 기능원·단순노무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관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연결직업으로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연결직업으로 이동하는 시점의 평균연령이 56.8세이기 때문에 농림어업직을 연결직업으로 유지, 또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생애직업은 임금근로자가 45%인데 반해, 연결직업은 67.9%로 나타났다. 즉 생애직업이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였던 근로자들 중 다수가 연결직업을 임금근로자 형태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진적 은퇴를 선택한 은퇴자들은 생애직업에서 평균 22.8년 근무하고, 연결직업에서는 평균 7.1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임금수준은 생애직업이 약 104만원으로, 연결직업(약 82만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연결직업의 경우, 기능원·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근속년수가 짧으며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생애직업 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은퇴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점진적 은퇴=1, 전통적 은퇴=

(표 6) 은퇴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n=1,045)

| 종속변수 | | 점진적 은퇴 = 1, 전통적 은퇴 = 0 | | |
|------------------|----------------|------------------------|-------------|------------|
| 독립변수(괄호 안은 준거집단) | | coefficient (s.e) | | odds ratio |
| 인구 사회학적 특성 | 성별 (여성) | | | |
| | 남성 | -1.803*** | (0.389) | 0.165 |
| | 연령 (50대) | | | |
| | 60대 | -1.902** | (0.539) | 0.149 |
| | 70대이상 | -3.513*** | (0.660) | 0.030 |
| | 교육수준 (무학) | | | |
| 초·중졸 | -0.088 | (0.337) | 0.916 | |
| 고졸이상 | 0.650 | (0.461) | 1.920 | |
| 배우자유무 (없음) | | | | |
| 있음 | 0.568 | (0.351) | 1.765 | |
| 경제적 특성 | 가계총지출액 | -1.71E-005 | (1.01E-005) | 0.999 |
| | 순자산 총액 | -4.85E-007 | (6.32E-007) | 1.000 |
| | 부채 총잔액 | 6.51E-006** | (2.08E-006) | 1.000 |
| | 공적이전소득유무 (없음) | | | |
| | 있음 | -1.714*** | (0.351) | 0.180 |
| 사적이전소득유무 (없음) | | | | |
| 있음 | 0.333 | (0.299) | 1.395 | |
| 생애직업 특성 | 직업 (기능원·단순노무직) | | | |
| | 전문·관리직 | -0.179 | (0.428) | 0.836 |
| | 사무·판매·서비스직 | -0.040 | (0.390) | 0.961 |
| | 농림어업직 | 0.843 | (0.516) | 2.320 |
| | 고용형태 (비임금근로자) | | | |
| | 임금근로자 | -0.400 | (0.291) | 0.670 |
| | 임금 | -0.001*** | (0.000) | 0.999 |
| 종료연령 | -0.419*** | (0.033) | 0.658 | |
| 상수 | | 24.764 (2.667) | | |
| chi-square | | 251.733*** | | |
| -2log likelihood | | 418.740 | | |

* p<.05 ** p<.01 *** p<.001

0으로 하는 이분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유무)과 경제적 특성(가계총지출액, 순자산 총액, 부채 총잔액, 공·사적 이전 소득 유무) 및 생애직업 특성(직업, 고용형태, 임금, 종료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VIF 값을 통해 점검한 결과,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은퇴유형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성별, 연령, 부채 총잔액, 공적이적소득 유무, 생애직업 임금 및 생애직업 종료연령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한 직업에서 오랫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은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여러 직업 이동을 거쳐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보다 60대와 70대가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진적 은퇴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밝힌 지은정(2006)의 연구, 50세-57세의 근로자들이 생애직업에서 연결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한 Quinn(199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연령이 낮을수록 신체능력, 근로욕구, 재정적 필요성 및 고용가능성 등이 높기 때문에 연결직업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 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부채 총잔액이 많을수록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부채 총잔액이 많은 경우, 부채상환과 노후생활준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 은퇴를 통해 은퇴시기를 지연시키고 근로소득 획득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의 안정적 소득원을 제공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소득의 대체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후에 근로를 지속하려는 욕구를 감소시켜 점진적 은퇴 선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자리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생애직업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생애직업 종료연령이 높을수록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

애직업에서의 높은 임금은 저축과 투자여력을 높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애직업을 그만 둘 당시의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 없이 보내야 할 노후생활기간이 증가하고, 충분한 재정자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은퇴유형에 따른 가계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변화하는 은퇴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후생활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은퇴집단과 점진적 은퇴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계 경제적 특성, 일자리 특성을 비교하고, 은퇴유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남성 보다 점진적 은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생애직업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점진적 은퇴를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은퇴유형 선택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본 연구에서 여성의 점진적 은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그 선택의 자발성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지위에 위치하고, 고용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점진적 은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애직업에서 임금수준이 낮은

직업 역시 유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성별을 막론하고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 근로자들은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점진적 은퇴가 노후생활의 복지를 증진하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다양한 은퇴 유형과 은퇴경로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 경우라도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퇴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50대에서는 점진적 은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60대, 70대에서는 전통적 은퇴경로를 택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신체능력, 근로욕구, 재정적 필요성 등이 더 높기 때문에 연결직업을 통해 취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60대와 70대의 고령자들에 대한 직업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 근로수명의 연장 추세를 고려할 때, 점진적 은퇴를 선택할 수 있는 연령의 폭이 보다 넓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점진적 은퇴집단이 전통적 은퇴집단 보다 은퇴 후 소득(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자산, 부채 측면에서 모두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은퇴집단의 경우, 점진적 은퇴집단 보다 근속년수가 유의하게 길고, 생애직업 종료 당시 연령도 유의하게 높았다. 즉 오랜 기간 동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고, 충분한 직업경력을 통해 공적연금과 가계자산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연결직업을 통해 추가적 노후 소득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점진적 은퇴집단의 경우는 생애직업의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충분한 노후재정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결직업을

통해 은퇴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진적 은퇴집단이 연결직업을 통해 평균 7년 정도, 약 65세까지 근로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가계 경제상태가 전통적 은퇴집단보다 열악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 은퇴집단은 특히 공적이전 소득이 현저하게 낮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결국 생애직업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업지위에 있던 근로자들이 점진적 은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점진적 은퇴가 불가결의 선택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점진적 은퇴집단은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모두에서 기능원·단순노무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생애직업 보다 연결직업에서 그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직업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이 점진적 은퇴를 선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줌과 동시에, 전문적 기술이나 관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연결직업으로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대로,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 밀착형 은퇴자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고령자 취업지원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에서 더 많은 고령자를 직접 고용 내지는 취업 지원하며, 재취업하는 은퇴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된다면, 은퇴자들은 점진적으로 은퇴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퇴라는 사건에 적응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은퇴자 개인과 은퇴가계의 재정적 복지를 증진하고, 노후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직업(bridge job)을 통한 점진적 은퇴만을 살펴보았지만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단축 등 다양한 점진적 은퇴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은퇴결정 당시의 부양가족원 수, 배우자의 근로상태 등의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가계특성이 보다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은퇴선택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노후준비정도, 가계특성 비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문일(1996). 고령자의 퇴직 및 퇴직 후 근로행태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8, 41-67.
- 2) 김지경(2004).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 한국노동경제연구원 Research Brief 8, 1-10.
- 3) 김지경, 김하늬(2008). 완전은퇴 남성의 주된 소득원천 및 소득액 결정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57-89.
- 4) 박경숙(2001). 중장년기 중사상 지위와 은퇴과정의 다양성. 노동경제논집 24(1), 177-205.
- 5) 박경숙(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은퇴-비취업 경계에 대한 함의.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271-303.
- 6) 안중범, 전승훈(2004). 은퇴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노동경제논집 27(3), 1-23.
- 7) 이승원, 김동배, 이주연 (2008).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07-125.
- 8) 이정원(2006). 정년은퇴 여부에 따른 경제적 격차와 정년은퇴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0, 71-99.
- 9) 이현기(2003). 노년기 조기퇴직과 경력마감 형태: 남성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2(2), 33-61.
- 10) 장지연(2002). 고연령 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세미나 자료집, 32-49.
- 11) 장지연(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대안적 은퇴과정으로서의 근로시간단축과 자영업창업의 비중. 한국사회학 37(2), 95-121.
- 12) 지은정(2006).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한국사회복지학 58(3), 135-168.
- 13) 통계청(2006). 2006년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부가조사. www.kostat.go.kr.
- 14) 통계청(2007). 2007년 생명표. www.kostat.go.kr.
- 15) Flippen, C. A.(2005). Minority workers and pathways to retirement. in The New politics of old age policy, edited by Robert B. Hudson. Baltimore. Maryland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29-156.
- 16) Gustman, A. L. & Steinmeier, T. L.(1986). A structural retirement model. Econometrica 54(3), 555-584.
- 17) Hayward, M. D. & Hardy, M. A.(1985). Early retirement processes among older men: Occupational differences. Research on Aging 7(4), 491-515.
- 18) Kim, H. & Devaney, S. A. (2005). The selection of partial or full retirement by older work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6(3), 317-394.
- 19) Quinn, J. F.(1981). The extent and correlates of partial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21, 634-643.
- 20) Quinn, J. F.(1996). The role of bridge jobs in the retirement patterns of older Americans in the 199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 14(2), 102-121.
- 21) Quinn, J. F., R. V. Burkhauser & D. A. Myers.(1990). Passing the torch: The influence of economic incentives on work and retirement. Kalamazoo, MI :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22) Ruhm, C. J.(1990). Bridge Jobs and Partial

Retir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8(4), 482-501.

- 투 고 일 : 2009년 10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10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1월 25일